**68세 왕치산, '七上八下' 깨고 中 총리 될까**

◆2016.11.02 03:00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2/2016110200169.html  
중국 고위 당국자가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 이하면 유임되고 68세 이상이면 은퇴)' 원칙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내년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를 개편할 때 69세가 되는 측근 왕치산(王岐山) 상무위원(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을 유임시키는 데 걸림돌이 없다는 의미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덩마오성(鄧茂生) 중앙 정책연구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6중전회 외신기자 설명회'에서 "왕치산 상무위원이 칠상팔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칠상팔하라고 하지만 어떤 상무위원은 68세가 되기 전 은퇴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덩 부주임은 지난 27일 폐막한 공산당 6중전회의 공보(결과문) 초안 작성에 참여한 당 핵심 인사이다. 그는 "지도자를 인선할 때 당은 엄격한 규정과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상무위원의 연령 제한에는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칠상팔하'는 장쩌민(江澤民) 시대인 2002년부터 관례로 굳어졌다. 이 관례에 따르면 상무위원 7명 중 내년 64세가 되는 시 주석과 62세가 되는 리커창(李克强) 총리를 뺀 나머지 5명은 모두 은퇴해야 한다. 그러나 반부패 개혁을 이끌며 시 주석이 단기간에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한 왕치산 상무위원은 예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왕치산 상무위원은 공산당이 위기 때마다 호출한 '소방수'였다. (中国国内外问题的深刻性)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 건설은행장이었던 그는 광둥성 부성장으로 급파돼 10억달러가 넘는 부실채권을 처리했다. 2003년 수도 베이징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창궐해 대혼란이 벌어졌을 때 이를 수습한 것도 그였다. 하이난성 서기 부임 5개월 만에 베이징 시장으로 불려온 그는 전임 시장이 은폐에 급급했던 환자 발생 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과감한 조치로 한달 만에 사스를 퇴치했다. 2008년에는 금융·대외무역 담당 부총리로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덩샤오핑 시대 부총리를 지낸 야오이린(姚依林)의 사위인 덕분에 태자당으로 분류되지만, 능력 면에서는 '철혈재상' 주룽지 이후 가장 뛰어난 관료로 꼽힌다. 시 주석이 그를 유임시킨다면 리커창 총리를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옮기고, 그에게 총리직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王岐山若主导国务院中国的对内对外政策将会有所变化）

**시진핑을 '핵심'으로 호칭, 덩샤오핑·장쩌민 반열로… 집단지도체제는 유지**  
◆2016.10.28 08:30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8/2016102800183.html>

27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이하 6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사진**) 주석에 대해 '핵심(核心)'이라는 호칭이 처음 사용됐다. 덩샤오핑(鄧小平)·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에 대해서는 사용됐으나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호칭이다. 반(反)부패를 내세워 권력 기반을 다져온 시 주석의 위상이 당권과 군권을 한 손에 쥐고 1인 체제를 구축했던 장쩌민의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强化的习核心说明在外交安保方面，习近平个人将发挥更大的作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발표한 '6중전회 공보'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6중전회 폐막 직후 게재한 사설에서 "당 전체가 '핵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당과 군, 인민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당과 국가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핵심'이라는 호칭은 양회(兩會·전인대와 정협)를 앞둔 올 1~2월 지방 지도자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다 자취를 감췄었다. 이번 6중전회를 앞두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들이 다시 '핵심'이라는 호칭의 당위성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시 주석이 이를 관철시킨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그러나 "집체영도제도를 굳건히 유지한다"고 밝혀 덩샤오핑(鄧小平)이 만든 집단지도체제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는 "현행 상무위원회를 통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시 주석에 대해 총괄 지휘의 위상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 주석은 이에 따라 내년 가을 19차 당대회 때 있을 지도부 물갈이 과정에서 측근인 왕치산(王岐山) 상무위원을 유임시키는 등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두테르테가 미국과 거리 두자 訪中 앞두고 커다란 선물 제공  
  
**필리핀 유혹하는 중국… "바나나 禁輸해제"**◆2016.10.12 03:00 조선일보

중국 정부가 필리핀산(産) 바나나 수입 제한 조치를 4년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오는 18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앞두고 중국이 필리핀에 선물을 안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자오젠화(趙鑑華) 주(駐)필리핀 중국 대사는 최근 필리핀 농림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필리핀 과일 수출업체 27개 사에 대한 대중(對中)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누엘 피뇰 필리핀 농림장관은 로이터에 "중국 정부가 추가로 망고, 용과(龍果), 새우 등 필리핀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필리핀에) 최대의 농산물 시장이 다시 열렸다는 것은 뜻밖의 횡재"라고 했다.  
  
중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지난 2012년 해충이 발견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필리핀산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주요 과일 수출업체 5곳에 대중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월에는 대중 수출금지 조치 대상 업체를 27곳으로 확대했다. 에콰도르에 이어 세계 2위 바나나 수출국인 필리핀은 이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외신들은 이번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제한 조치 해제가 양국 간 해빙 무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유커(遊客·중국 관광객)의 필리핀 무비자 방문 허용도 추진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경제 협력 확대 방안과 남중국해 해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떠오른 격'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杜特尔特带领菲律宾进行180度的外交大转向，将会促使中国在南中国海减压，从而将重心转移到韩半岛的萨德问题)

**‘다마’로 바뀐 박근혜 대통령 호칭**  
◆2016.10.29 13:05 동아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0795039>

얼마 전 한·중 관계를 주제로 상하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일반 방청객 없이 양국 학자·전문가들만 참가한 비공개 행사였던 까닭에 양국 현안에 관한 비교적 솔직한 토론이 오갔다. 목소리를 높여가며 논전을 벌인 현안은 단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였다.  
  
중국 측 좌장 격이었던 한 원로 학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사드는 결코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곧 퇴임하면 ‘큰 변화’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말 속에 정부 공식 발표나 관영 언론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중국의 속내가 담겨 있다고 본다. 한국의 대 선 향방을 예상하며 사드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얘기다. 사드 배치를 서두른다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실제 예정보다 늦어지기 십상이고 그 사이 대선의 쟁점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다시 묻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 학자도 한국에서 이처럼 빨리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순실 사건을 중국에서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중국 매체와 인터넷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대의 정치드라마를 전문번역 수준으로 낱낱이 퍼나르고 있다. 한때 친근감을 담아 ‘다제(大姐·큰누님)’라 불리던 박 대통령의 호칭은 이미 ‘다마(大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0/29/htm_2016102913450776828.jpg·아줌마)’로 바뀌었다.** 한 중국 언론인은 “구중궁궐의 밀실에서 일어나는 궁정 야사에 익숙하기로 따지면 중국인을 따라올 민족이 없을 텐데 이번 사건만큼은 아무리 기사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며 도움을 청해왔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흥밋거리로만 보지 않는다. 중국 관변 학자들은 한국 정국의 추이와 사드를 포함한 한·중 현안 대응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闺蜜门中国怎么看韩国？实际上中国媒体对朴槿惠的态度确实是发生着变化)

DA 300

지금 이 전대미문의 국면이 어떤 결말에 이를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물론 외교에서도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미르인지 미륵인지 무슨 재단에 잘못 흘러간 돈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상대가 있는 외교·안보 정책은 사정이 다르다. 이대로라면 정상회담에 나간들 외국 정상을 상대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겠는가. 한시바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습 방안을 마련해 국정공백을 막는 게 급선무인 이유다.  
  
독설로 유명한 환구시보는 26일자에서 중국 학자의 입을 빌려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최근 2년간 충동적이고 (이성이 아닌) 정서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게 최순실의 영향 아니었나”라는 것이다.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는 말을 최씨가 하고 다녔다”며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연관 지은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힌트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여태까지 설마했던 시중의 소문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 입을 다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발 이 소문만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 이상 더 어떻게 참담해질 수 있단 말인가. （中国实际上想接机崔顺实事件 制止萨德入韩 即使可能性并不大。）